

발간등록번호

2023-KIHF-099

따뜻한
돌봄동행

2023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함께 만든 우리의 보물일지

전 태 복

달성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 이거 기억나세요?”

종종 서로 안부를 전하는 이용자 가정에서 오랜만에 사진 몇 장과 함께 연락이 왔다. 태아 초음파사진과 익숙한 필체가 노트에 빼곡하게 차 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써 내려간 육아일지였다.

“어머~, 어머니! 이걸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셨네요~!”

“그럼요. 우리 집 가보인걸요~!”

“저에게도 보물 같은 기억이랍니다. 초록이는 잘 지내나요?”

“저희 초록이가 이번에도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집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그때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날의 육아일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초록이 영재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며 함께 웃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0여 년 전 우리가 말한 대로 아이는 정말 눈부시게 맑고 총명하게 잘 자라고 있다. 발명에 열중하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초록이’라는 태명처럼, 싱그러운 초여름 같다.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안부를 전하는 고맙고도 어여쁜 어머니의 마음씨에

다. 옆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자꾸 알려주게 된다. 기다리다가 화나는 일도 참 많았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도 더하기의 연산이 곱셈이고, 빼기의 연산이 나눗셈이 되는 원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다. 더하기 1부터 시작한 연산이 4자리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로 진행되니, 이제 좀 느긋해진다.

돌봄이 없는 휴일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청소와 설거지를 한다고 한다.

“그래, 얘들아! 좀 느려도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어!”

오늘도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과 3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기분 좋게 돌봄을 하러 간다.

나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오른다. 떠올리기만 해도 빙긋 미소 지어지는 아이와의 기억도 함께...

2010년 11월 22일, 갓 태어난 초록이를 처음 만난 날이다. 초록이네는 어머니가 재택근무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었고,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첫아이라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어요. 아이돌봄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매우 반겨주셨다. 그러나 초록이와의 만남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첫날 아이는 많이 보채고 칭얼대다가 자지러지게 울었고 안아주거나 업어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이는 모유 수유 중이었는데, 분유를 젖병에 담아 주어도 먹지 않고 엄마 젖만 찾으려 하며 어머니는 난감해했다. 나는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모유가 부족해서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예민해져서 더 울고 보채는 것 같아요. 분유를 숟가락으로 먹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나의 조언에 따라 숟가락으로 먹여주었는데, 아이는 잘 받아먹고 배가 부르니 잘 놀고 더 이상 칭얼거리지도 않았다. 그 모습에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였다.

“이유식도 조금 일찍 시작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개월에 맞게 부드러운 이유식을 준비해서 분유와 이유식을 시간 맞춰 먹였다. 배가 부르니 아이는 기분 좋게 웅얼이 하며 잘 놀고 잠도 잘 잤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흡족해했다. 나와 어머니 관계에 신뢰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초록이는 첫날에는 책과 장난감을 보여주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

데, 내가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충족해주려 애쓰자, 돌보미 4일차 만에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반응하고 뒤집기를 하였다. 나의 손길이나 동작에 방긋방긋 웃으며 나에게 두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맡기는 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아이와 어머니가 모두 나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 나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돌봄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교육에서 배운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맞춤형 양육에 대한 지식도 도움이 되었다. 발달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욕구에 맞춰 아이와 온몸으로 소통하며 따뜻하게 보살피주려 애썼다. 매일 다양한 놀잇감으로 놀아주고, 책을 5~6권 이상 읽어주었다. 책장을 넘기는 부분도 아이의 손을 잡고 반복해서 도와주었더니, 8개월 전에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적으로는 11~12개월이 되어야 가능한 행동인데, 아이가 빠르게 습득하는 모습에 어머니도 나도 신이 났다.

나를 보자마자 폭 안기며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며 잘 따르고, 날이 갈수록 영민해지는 아이의 모습에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초록이와 어머니를 보며 나는 나의 첫아이 육아가 떠올랐던 것 같다.

첫아이를 낳고 물어볼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 육아서적을 쌓아놓고 무작정 읽었다. 그저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온종일 잘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며 웃게 해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어디선가 책에 꿀을 발라두어 갓난아이 때부터 책과 가깝게 했다는 육아비법을 듣고, 우리 아이에게도 매일 책을 읽어주었다. 그랬더니 21개월쯤부터 한글을 모르는데도 책장을 혼자 넘기며, 동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읽듯이 외워서 말하는 영특함을 보였다. 이런 육아 경험이 있어서 초록이 어머니에게 더욱 애정과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튼튼하고 속지가 예쁜 노트를 구해 와서 아이의 성장을 매일 기록하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아휴~, 저도 아직 못한 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 이젠 우리 집 가보로 삼아야겠어요~!” 하며 기뻐하셨다. 어머니가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었는데, 그 공간을 아이의 태아 초음파사진, 발 도장, 태몽 이야기, 아이 사진 등으로 채우셨다.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성장을 보였다. 생후 4개월에 만나 6세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아이의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13년간 돌봄활동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귀중한 경험이다.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다.

초록이의 육아일지를 쓰면서,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와 독서, 양육자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이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는 초록이 덕분에 유아교육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흥미가 생겨 유아특수보육학과에 입학하였고, 57세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아들,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진기한 체험도 하였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선생님~, 초록이는 책 읽는 역량과 이해력이 고3 수준이라고 도서관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초록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이예요!”

“선생님~, 우리 초록이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본 교육청 영재시험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우리 초록이 오늘 반에서 1등 했어요~!”

아이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과거의 공에 감사한다. 가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정하고 살가운 이용 가정을 만났으니, 오히려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아이돌보미’가 단순히 잠깐 아이를 봐주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존재를 함께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그리고 기꺼이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여기며 나를 믿어준 어머니, 나를 믿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출근길에 새록새록 피어오른 행복한 기억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물일지임을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

